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㉓ - 군내면 선정비군(郡內面 善政碑群)

역대 현감군수의 업적 기리는 공덕비

19세기초에서 19세기말까지 포천 부임



최 중 규
포천문화유적 회장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7호
· 소재지: 군내면 청성체육공원내
· 규모: 선정비 9기

이 비군(碑群)은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19세기초에서 19세기 말까지 포천에 부임해 와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역대 현감군수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公德碑)로서 이 고장의 지방사(地方史)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비(碑)는 모두 9기(基)로 비문·규모·건립연대는 다음과



군내면 청성체육공원내에 위치한 군내면 선정비군.

같다.

- (1) 방백전후남활민비(方伯全候南活民碑) 己卯三月日 立 영세불망(永世不忘)
[규모] 높이 140cm, 폭 50cm, 두께 20cm
[연대] 영조(英祖) 35년(1759)
- (2) 현감심후정고청덕선정비(縣監沈候廷清德善政碑) 丙成二月 立
[규모] 높이 140cm, 폭 45cm, 두께 15cm
[연대] 숙종 32년(1706)
- [특징] 비두(碑頭)에 운문(雲

- 文)조각
- (3) 현감이후윤식청덕애민선정비(縣監李後允植清德愛民善政碑) 辛卯十月 立
[규모] 높이 130cm, 폭 50cm, 두께 20cm
[연대] 순조 31년(1831)
- (4) 현감조공문화청덕애민선정비(縣監趙公文和清德愛民善政碑) 도광정미(道光丁未) 八月 日 立
[규모] 높이 126cm, 폭 50cm, 두께 20cm
[연대] 현종 13년(1847)

- (5) 현감이승경주영세불망비(縣監李松競柱永世不忘碑) 庚辰 立
[규모] 높이 129cm, 폭 50cm, 두께 20cm
[연대] 고종 17년(1880)
- (6) 현감심공홍조청덕애민선정비(縣監沈公興祖清德愛民善政碑) 己亥 立
[규모] 높이 118cm, 폭 40cm, 두께 25cm
[연대] 순조 5년(1839)
- (7) 현감홍공태운영세불망비(縣監洪公泰潤永世不忘碑) 甲午 立
[규모] 높이 113cm, 폭 40cm, 두께 25cm
[연대] 고종 31년(1894)
- (8) 행현감홍후재의애민선정비(行縣監洪候在義愛民善政碑) 癸未三月 立
[규모] 높이 115cm, 폭 40cm, 두께 20cm
[연대] 고종 20년(1883)
- (9) 행군수박공영세청덕비(行郡守朴公永世清德碑) 丙申八月 立
[규모] 높이 111cm, 폭 40cm, 두께 14cm
[연대] 건양 1년(1896)

가산농협 새해설계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위해 노력하겠다



심 재 호
가산농협조합장

가산농협은 가산면과 내촌면 2개 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조합원은 2천66명이 며 준 조합원은 5천356명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모두 8명이며 직원은 78명(2급 전무 1명, 3급 상무 4명, 4급 과장 9명, 5급 과장 대리 28명, 5급 계장 3명, 6급 주임 1명, 기능 7명, 계약직 14명, 시간임부보조 11명)이다.

조직현황은 영농회 43개, 부녀회 43개, 작목회 3개, 작목반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농협 총 자산은 전년보다 137억4천800만원이 신장된 1천349억9천700만원이고 총부채는 예수금 1천34억원을 포함해 1천226억9천300만원이며 자기자본은 출자금 30억8천100만원 포함 117억300만원으로 조합원 평균 566만원 정도이다.
가산농협은 지난해 농업인·조합원 편익사업으로 80평규모의 하나로 마트매장을 200평 규모로 확장했으며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키 위해 종합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창구자동화율을 91.4%로 높이는 등 명실공히 농촌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심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상호예금 예수금 1천억원과 대출금 1천억원을 동시에 달성하여 농업인의 지원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심역할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 지난 4년간 가산농협을 경영 평가 전 부문 1등급으로 성장 발전시켰으며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자산 건전성 연체 채권정리부문에 서도 전국 1천300여개 조합 중 36개 조합만이 인정받는 탐골리뱅크 농협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다.
어려운 농촌경제 상황에서도 2005년도말 전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10억7천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출자배당 5.62%와 사업이용도 배당 220%인 5억1천600만원의 조합원들에게 설전에 현금으로 모두 배당 지급하였다.
2005년에는 쌀 수입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한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산농협은 가산·내촌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 매입하였고 농민조합원의

고충을 다스나마 지원하고자 하여 비료와 농약에 1억8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벼 출하농가에 추가로 1억4천만원의 장려금을 쌀로 지급했다.
이밖에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6천800만원을 비롯해 원예농가에 대한 유기물 비료지원 4천만원, 농업인 건강검진사업 500만원 등 7억400만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2006년도에도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원 및 벼 신종품 가능성 재배 지원, 영농자재 지원, 각종 복지 사업 등 전년도 보다 1억원 증가한 8억5000만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DDA농업협상이 예상되는 2006년도에는 수입개방에 대비해 게르마늄이 함유된 쌀과 포도의 개발과 생산으로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가산농협은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첫 월급과 시루떡

K형!
한동안 적조 되었습니다. 신설 학교로 발령을 받고 보니 이것 저것 챙기고 계획 세우고 시설 및 설치하러 여쭙다 보면 시간이 나도 모르게 훌쩍 지나고 갑니다.
그건 그렇고
K형!
시루에서 방금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팔고물 시루떡 드셔 보셨어요? 난 37여년동안 교직 생활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네 시절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 내의(빨간)나 형제 또는 조카들에게 양말 켜러나 선물하러 않았던가요? 요즈음은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요.
빨간 팔고물 고물을 한 시루떡을 쌀 몇 말분쯤은(?) 먹었음

직한데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고사떡, 제사떡, 명절 떡, 이사 떡... 무슨 뜬금없이 시루떡 타령이냐고요?
글쎄 오늘 내가 먹은 시루떡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맛 있는 시루떡이 있었을까?
오늘 직원협의회 시간이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거 있잖아요? 따끈따끈한 시루떡의 고유한(?)냄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런 시루떡 한 접시가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웬 시루떡이죠?”
“예, 신규 선생님들이 첫 월급 기념으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네요.”
순간 콧등이 정해 읊니다.
K형!
교직생활 37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루떡을 지금 내

가 먹고 있었어요.
이후 학급이 증설되면서 신규 선생님들이 발령되고는 하는데 이 시루떡이 전봉이 되려나 봅니다. 이후 37년 곱하기 3을 한 데도 이런 시루떡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모라모라 김나는 시루떡 보이시죠? 포천에서



김 춘 화
신봉초등학교 교장

희망을 노래하자



2006년 6월이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한 월드컵의 함성이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축구경기를 보며 왜 열광하는 것일까? 우승을 향해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의 강한 정신력과 온힘을 다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기 몫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회 비리로 혼탁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에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 병술년 아침 희망을 찾아보자.
로버트 키오샤는 이런 말을 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용어는 '내일'이라는 단어라고 내일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불행하며 실패한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내일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삶은 승리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오늘' 이란다.
게으른 사람에게 내일이 핑계로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바쁜 오늘이야말로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이다.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전, 겸손, 성실'은 삶의 필수이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영, 박찬호, 이렇듯 들어도 희망이 보인다. 왜일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 성실,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연습 삼매경, 날이저도 상대를 배려하며 웃어주는

겸손, 끝없는 세계로의 도전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
병술년 아침 오늘 시작하자. 희망을 갖자. 도전하자. 도전하는 자에게 성공도 보장되는 것이다. 희망찬 병술년을 위해 우리 모두 용기를 갖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자.



김 창 성
가산초등학교 교장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

종합선물세트

꽃샘고려홍삼품세트
홍삼꿀 1000g

꽃샘토종고구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구리3호
토종꿀 12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집화꿀 17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화 꿀 1200g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꽃샘 기획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잡화 꿀 12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